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햇마늘 포장화 적극 추진
 소비자 홍보 강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노석갑)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햇마늘에 대한 포장화를 적극 추진한다.

농산물의 포장화는 물류비 절감과 유통의 투명화를 도모하는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과일류의 포장 정착에도 불구하고 햇마늘과 무·배추 등 일부 채소류는 아직도 비포장 상태로 유통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마늘 거래량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가락시장은 이런 불합리한 유통 관행을 개선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장화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부의 “2006년 마늘포장화 정착대책”에 따라 올해도 가락시장에 비포장 햇마늘 반입은 금지된다.

따라서 가락시장에 햇마늘을 출하하려는 출하자는 반드시 그물망이나 골판지 등 포장재를 사용해 3kg(50개), 5kg(50개, 1백개)단위로 포장 출하 해야 된다.

또한 4월~7월의 기간동안 포장 출하되는 햇마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출하자에게 포장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물류기기공동이용을 통한 파렛트 출하시에는 임차료 지원과 함께 출하촉진 장려금(3천원/파렛트 당)을 출하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5천원/파렛트의 하역비 지원을 통해 물류선진화

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햇마늘은 5월~6월에 도매시장으로 집중 출하되는 난지형 마늘로 고흥, 창녕, 남해, 해남, 서산 등이 주산지다. 일반적으로 장아찌용으로 소비되는 햇마늘은 항암효과로 매년 꾸준한 소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포장 햇마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 소비자가 햇마늘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주대마늘이 상품성이 우수하고, 줄기가 달린 “주대마늘”만 국산 햇마늘로 오인하는 문제다.

실제 이 시기에 햇마늘이 수입되는 경우는 없다. 상품성 하락 문제에서도 2002년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충북농업기술원 단양마늘시험장의 연구결과 주대제거에 따른 상품성 하락은 없었다.

햇마늘 포장화는 관행적이고 전근대적인 유통을 탈피해 유통을 선진화 시키는 수단인 동시에 날이 갈수록 위기에 처하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공사는 이런 내용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자체 제작한 인터넷동영상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부산국제수산물무역엑스포
 11월16일부터 4일간

부산광역시는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BEXCO(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06 부산국

정책기관

제수산물무역엑스포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수산산업의 최신기술, 신소재, 트렌드 및 산업정보를 교환하게 되며, 지난해 세계 28개국 5백개업체가 7백50부스를 참가, 5백3건의 무역상담과 모두 3천5백만불 상당의 계약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이 전시회에는 수산식품관, 수산기자재관, 해양바이오관, 외국업체관으로 나뉘어 전시되는데 수산기자재관에는 식품포장기기도 전시된다.

또한 외국 바이어를 초청, 국내 업체와 연계시켜주며, 본 행사와 특별전, 이벤트행사, 국제행사, 부대행사로 진행, 생산자와 판매자, 국내외 구매자에게 가장 편리하고 쾌적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경상북도청 지역중소기업 산업디자인 지원 실시 포장, 시각디자인 등

경상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디자인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실현을 위한 「2006년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02년부터 디자인개발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총 30개업체에 업체당 2백70만원(업체부담 30만원)을 지원해 세련된 디자인 개발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에 지원 분야는 제품, 포장(포장표면, 포장용기), 시각디자인(브랜드, 캐릭터, C.I, 카다로그) 등이며,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관련단체, 농·수·축산·임업 생산자 단체 등이다.

천안시 특산물 포장새 디자인 개발 ‘하늘그린’ 판매 촉진

천안시는 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하늘그린’의 이미지를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대표적인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천안시가 단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포장 디자인 개발에 들어간 품목은 멜론, 오이, 복숭아,



▲ 천안시 특산물 포장새 디자인 개발

사과, 호두, 버섯(느타리, 표고, 새송이), 개구리 참외, 잡곡 등 8개 품목 10종이다.

천안시가 대표적인 농·특산물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나선 것은 그동안 생산자 단체 단위로 포장재 개발이 이뤄지는 바람에 상품과 지역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은 공동브랜드 '하늘그린'의 이미지와 지역, 제품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며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며 의장등록도 추진하게 된다.

또 새로 개발된 디자인은 실제 포장박스로 생산해 각 품목별 출하 시기에 맞춰 농가에 공급해 농·특산물의 상품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디자인기업 입주 밀물
 디자인산업육성 청신호

최근 개원한 광주디자인센터(GDC)에 디자인 전문기업 입주가 쇄도하는 등 인기가 상한가를 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 디자인혁신 사업, 디자인 공동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포럼사업 등을 적극 추진,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의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재)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봉규)는 지난 달 15일 "1차 디자인 전문기업 모집 결과 24개 전문기업이 계약을 체결, 현재 17개 기업이 입주를 마

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광주 첨단단지에 있는 광주디자인센터(GDC)는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전문기업들의 입주 러시속에 '지역 디자인산업의 메카'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센터 입주기업은 유형별로 제품디자인 분야 6개 업체를 비롯, 시각·포장 8개, 건축·실내 2개, 웹디자인 3개, 공예분야 1개, 설계분야 4개 업체 등이며, KIDP(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 업체는 (주)인디디자인 등 9곳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업이 입주함에 따라 상호 시너지효과도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주디자인센터 이봉규 원장은 "디자인산업 육성은 광주시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매출액 증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한 단계 도약 시킬 것"이라며 "많은 디자인업체들이 고용인원 10인 미만,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인 점을 감안, 기업지원 및 규모화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디자인센터(GDC)는 3월 개원행사 이후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지역디자인혁신사업인 '떡 브랜드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앞으로 브랜드 관리 및 인증을 센터에서 추진함으로써 디자인산업과 지역 산업체 연계를 통한 수익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특화산업별 디자인 공동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포럼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이 지역의 특화산업인 광산업, 백색가전, 자동차부품산업, 부품소재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을 중심으로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책기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일본 시즈오카시장 일행이 센터를 찾는데 이어 지난 달 1일 중국 빈주시장 일행이 센터를 방문해 지원약속과 지사개설 요청 등 큰 관심을 보이는 등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도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광주디자인센터는 광주, 전남·북, 제주까지 아우르는 서남권 지역디자인 산업 육성 중추기관으로서 디자인개발 장비 지원, 디자인 인력 교육 지원, 디자인 정보 제공, 세미나실 등을 지원하고 국가 공공 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적 행사를 주도하기 위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공격적인 사업수행 및 비즈니스전략으로 광주디자인센터 성공신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지역 디자인센터 가운데 전국 최초로 개원한 광주디자인센터는 최근 1만평 부지에는 코스모스길을 조성, 가족단위, 어린이들의 산교육장과 체험공간을 꾸미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전당으로 시민의 참여공간과 전시공간, 열린공간'으로써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

공공기관 1회용 종이컵 사용 줄여 중앙부처 공무원 자기 컵 갖기 운동

환경부(장관 이치범)가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작년 8월부터 환경보전을 위한 작은 실천 운

동의 하나로 시작한 "자기 컵 갖기 운동"이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컵 갖기 운동"은 사무실에서 개인 이름이 새겨진 머그컵의 사용을 통해 종이 컵 사용을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56개 중앙행정기관의 상주인원 11만9천여명 중 약 65.5%에 해당하는 7만8천여명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용 컵 이외에 다회용 컵 사용자까지 포함할 경우 약 94.9%에 해당하는 11만3천명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전체 자판기 1천4백95개중 65.5%에 해당되는 9백79개의 자판기가 1회용 종이컵을 회수·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11.5%에 해당하는 1백72개 자판기는 1회용 컵이 아닌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차류를 제공하거나 회의시 사용하기 위해 전체 8천6백37개 사무실의 71.0%인 6천1백28개 사무실에서 다회용 컵을 준비하고 있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러나 야외행사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컵을 준비한 사무실은 전체 8천6백37개 사무실의 12.1%인 1천40개 사무실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기 컵 갖기 운동"과 같이 직원들의 작은 관심만으로도 종이컵 줄이기와 환경보전의식 고취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등으로 "자기 컵 갖기 운동"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중 알루미늄 관리대책 마련 추진
사용 기준 및 기준설정 여부 재검토

식약청(청장 문창진)은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KBS 추적60분('06.5.17)에서 알루미늄에 장기과다 노출될 경우 위해성 논란을 제기함에 따라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알루미늄 검출과 관련해 식약청에서는 시중 유통 과자류를 포함한 전반적인 가공식품(1백건), 용기포장(10건), 조리식품(10건) 등 총 1백20건에 대한 알루미늄 함량 모니터링('06.6~7)을 실시하고 동 결과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해 기준설정 여부 등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식약청에서 주로 소비되는 36건의 과자류에 대한 모니터링('06.3.22~4.29) 결과 알루미늄 검출 수준은 불검출~110.1ppm 이었고, 이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식품 중 알루미늄 검출의 주요 원인이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의한 것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식품첨가물 자체 평가사업을 실시해 사용기준 및 기준설정 여부 등을 재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사용이 허용된 식품첨가물 중 알루미늄레이크 색소 8품목에 대해서는 자체 안전성 평가사업 및 CODEX 등 제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전반적인 사용기준을 검토하고, 5품목에 대해 비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로의 사용 전환을 유도해 전반적

인 식품 중 알루미늄 저감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사용빈도가 낮은 염기성알루미늄탄산나트륨(주용도 : 산도조절)은 지정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업체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을 천연첨가물 등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따른 일부 제품이 이미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유기농화장품 표시·단속실시
광고 지도

식약청(청장 문창진)에서는 최근 일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면서 비싼 값에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유기농 화장품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의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화장품 성분 중 일부만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명에 “유기농” 또는 “오가닉(organic)”이라고 기재해 성분전체 또는 대부분이 유기농 성분인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기재 행위와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화장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을 “유기농” 또는 “오가닉(organic)”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이다.

정책기관

식약청은 이와 같은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각 지방청과 시·도에 단속을 지시하는 한편, 관련단체를 통해 화장품 제조·수입업소가 제품명에 “유기농” 등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유기농 성분임을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유기농화장품은 피부자극이 적다고 광고·판매하고 있어 주로 피부가 연약하거나 아토피가 염려되는 유아들에게 사용되고 있으나, 특정 유기농 성분이 다른 성분에 비해 피부자극이 적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화장품이 저자극·고급 화장품이라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 포장 등에 기재된 보존제나 색소 등 화장품 구성성분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제우수안전식품전시회 개최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가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과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박승복)는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 홀에서 지난 달 10일부터 12까지 제5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 행사와 2006 국제우수안전식품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 맞이하는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국민 모두에게 식품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식품관련업자에게는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년 마련하는 행사이다.



▲ 식약청 국제우수안전식품전시회 개최

이 행사에서는 식품업체·단체, 학회 및 소비자단체 등 식품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 안전관리 성과에 대한 점검 및 의지를 다지고, 식품안전정책 추진방향과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됐다.

식약청과 식품공업협회는 이번 행사의 테마를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으로 정하는 한편 행사슬로건으로 '어린이 식품, 안전하고 맛있게'로 정해 국내 식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대국민 홍보를 통해 올바른 식품정보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날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서는 식품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정부 및 식품업계, 식품학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지를 담은 식품안전비전이 선포됐다.

문창진 식약청장은 기념사에서 "식품안전비전 선포를 계기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예방중심의 위해물질 관리,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한 식품 바른영양 대책 추진,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표시제도 정착,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 등에 식약청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빙그레 김호연 대표이사가 국민훈장을 받는 등 식품안전에 기여가 큰 각계 인사 78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됐다. 2006 국제우수산전식품전시회는 농심, 대상, 동서식품, 동원 F&B, 롯데, 빙그레, 한국야쿠르트 등을 포함 국내외 1백30여개사가 참가했다.

한편 전시회장 '소비자마당'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식품첨가물과 아토피, 벤젠, 트랜스지방산 등에 대해 소비자 대상 식품바로알기 강연이 개

최됐다. 식품표시, HACCP, 식품원료 등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퀴즈이벤트 행사도 마련됐다.

'학술마당'으로는 식품공업협회가 '생산이력 추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식품위생안전성학회에서는 '식품의 잠재적 신종 위해물질의 국제관리 동향'에 대해 한국국제생명과학회에서는 '바람직한 식품안전관리체계(우리나라 식품안전 현황과 대책)'를 중심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식품홍보마당'인 국제우수안전식품전시회를 통해 국내식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일반 국민과 어린이들에게 홍보했다.

특히 식약청 부스는 식품안전정책 및 HACCP 제품에 대한 정책과 홍보의 장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소량포장 규정』 입안 예고
 낱알모음 포장 공급 의무화

식약청(청장 문창진)은 올해 10월 7일부터 의약품(정제·캡셀제)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PTP·Foil 등 낱알모음포장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 소량포장단위 공급 의무화 대상은 정제와 캡셀제이며 ▲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낱알모음포장으로 공급하고 ▲ 포장단위는 1일 상용량을 기준으로 한달 이내 사용분으로 함(1백정·캡셀을 초과할 수 없음)

정책기관

등이다.

식약청에서는 금번 입안예고한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제도는 국민들의 의약품 복용기간 동안의 품질 확보는 물론, 불용의약품을 최소화해 국가적 재원 낭비요인을 방지하는 것인 만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카페인·糖 등 함유표시 의무화
안전 관련성 낮은 식품엔 기준·규격 대폭 완화

오는 9월부터 커피나 차(茶) 이외 식품에 함유된 카페인 표시가 의무화되는 것을 비롯해 2008년까지 트랜스지방과 당(糖), 방사선으로 조사한 원료 등의 표기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달 10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이같은 식품안전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식약청은 “오는 2008년까지 식품관리의 근간이 되는 현행 식품공전을 핵심적인 안전기준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기준이 설정되는 위해물질 범위도 확대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비만 어린이가 늘어나고 과자의 첨가물 유해성 논란 등으로 인해 부모들의 어린이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안

전 및 영양기준 관리를 엄격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9월 8일부터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성분을 모두 표시하고 커피나 다류 이외에 카페인 이 일정 함량 이상 들어있는 음료에 대해 고카페인이라는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트랜스지방이나 당 함량,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 사용 등도 그 표시가 의무화된다. 반면 식품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장기간 보존해도 변질이 되지 않는 식품은 현행 유통기한을 품질유지기한으로 전환하고 안전성에 직접 관련이 없는 품질에 대한 기준·규격은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실 의료기기 시험기관 경고
대부분 기관 행정처분 받아

민간위탁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들이 심사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복제의약품(카피약)의 약효가 오리지널약과 동일함을 입증하는 시험결과 조작과 함께 시험검사기관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의료기기 시험기관 9곳과 의료기기 평가항목을 결정하는 기술문서 심사기관 4곳의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관리기록 부실, 전

문직원 대신 평가능력이 의심스러운 촉탁직 직원 고용, 심사교육 미실시, 업무분장 불투명 등으로 경고와 주의,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시험검사기관 평가제를 실시해 시험기관의 전문성과 시험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 맞춤형 HACCP 제도 전개
주 구매층 주부에게 홍보

식약청(청장 문창진)은 소비자 특히, 식품의 주요 구매층인 주부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의 선택구매를 위한 HACCP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형 유통판매업체 및 HACCP 지정업소와 협력해 식품매장내에서 HACCP 제도 대국민 홍보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HACCP 적용제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약청이 홍보물로 준비한 각종 기념품을 선물로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HACCP 제도를 도입, 식약청 주관 하에 1백71개 식품업소가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번 홍보 행사에 참여하는 유통업체는 농협유통, 롯데백화점, 신세계이마트, 한국까르푸, 현대백화점 등 5개 대형식품유통업체로서 업체별 자체 홍보계획에 따라 HACCP 관련 홍보물 배부, HACCP 적용제품 초특가행사, HACCP 적용업소 공장 견학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특히 신세계이마트 및 한국까르푸는 전 매장에서 실시하게 된다. 식약청은 유통업체 주요매장에

HACCP 로고가 있는 홍보기념품과 포스터, 알기 쉬운 HACCP소개 등 홍보자료를 제공하며, 식품구매의 중심인 주부를 대상으로 HACCP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사업체에 제공한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소비자(주부) 맞춤형 홍보를 통해 HACCP 제도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식품산업 전반에 HACCP 도입 적용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기준팀(전화 02-380-1347)에 문의하면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KS) 제정방식 대폭 개편
국가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운영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국가표준개발 협력기관(PSDO : Partner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제도 도입을 통해 생산자단체, 표준화 포럼, 타 부처 표준화 관련 기관 등 민간이 주축 돼 KS 원안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표준개발방식으로 전환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가표준대표기관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금년 상반기 중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PSDO 운영요령을 확정할 계획이며, 지정대상은 한국환경기술연구소 등 표준·적합성 평가 관련 1백50여개 기관·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국가표준개발 수행 능력과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술표준원에 PSDO로 신청, 지정을 받게 되며, 기술표준원 표준담당관과

정책기관

관련 전문위원이 참여해 국·내외 기술표준 동향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하게 된다.

기술표준원은 PSDO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분야별 표준 전문인력 양성, PSDO “CEO 협의체” 구성·운영 및 KS 제·개정 등 표준화 추진시 PSDO의 참여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시 표준화와 관련된 기관을 PSDO로 활용해 KS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표준제정 절차의 신속화를 통한 국가표준의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PSDO에서 개발한 국가표준안에 대해서는 KS의 제정절차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현행체제에서도 이해관계자가 국가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관련 단체 등 수요자의 참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상향식 표준개발방식인 PSDO의 도입으로 민간부문의 표준화 역량강화는 물론 표준수요에 보다 더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PSDO를 육성해 국가표준의 활용·확산의 거점 및 국가·국제표준화 활동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RFID 산업화 국가표준 대폭 확충
 무선인식식별코드, 시험방법 KS 정비 설명회 개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무선인식(RFID)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식별코드,

시험방법 등 RFID 산업기반이 될 국가표준(KS) 14종 의원안을 마련하고, 산업계 의견조회를 거쳐 8월 중 국가표준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14종의 RFID 국가표준이 확충되면, 유통물류 등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밀접한 식품·의약품, 교통, 공공서비스 분야 등 사회 전반에 표준 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어, RFID 기기의 호환성확보, 품질향상 등이 기대된다.

작년에 RFID 통신 프로토콜 등 기초분야의 국가표준 14종이 제정됐으나, RFID 태그에 저장될 상품 및 사물 식별코드, 관련기기의 시험방법 등 시장 확산에 필요한 실용적 표준이 그간 산업계로부터 요구돼 왔다. RFID 식별코드는 ISO 표준에 따라, 국내 1개기관에 국가코드 발행기관의 자격을 부여하고 국제적 호환이 가능한 코드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발행기관, 관리방안 등은 KS 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빠르면 하반기부터 코드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실상국제표준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EPC(전자상품코드) 코드는 제조·유통물류 등 민간 산업부문에 확산되고 있어, KS 식별코드는 EPC 적용 대상이 아닌 공공사업, 서비스 분야 등의 식별코드로 확산될 전망이다.

RFID 시험표준은 RFID 리더·태그 등의 성능 및 호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며, 관련 시험기관들이 시험체계를 구축하면, 소비자는 국제표준에 맞는 RFID 기기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기술표준원은 RFID의 국가적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ISO의 상품, 동물, 차량, 물품 등의 RFID 국제표준화와 연계해 '08년까지 RFID 관련 국가표준 60여종을 정비하고 우리산업계에 실시간 보

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번 KS 14종이 추가로 확정되면, RFID 국가표준은 금년 중 총 28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술표준원은 한국표준협회, 한국유통물류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난 달 18일(목) 매리엇 호텔에서 2백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RFID 표준동향 세미나 및 KS 설명회”를 개최, 이번엔 마련된 국가표준 14종의 내용과 향후 RFID 산업화를 위한 국제·국가 표준화 대응방안 등을 산업계에 공표했다.

특허청
제1회 대학생디자인공모전 개최
 시각·포장·패션디자인 등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우수한 디자인의 개발과 이에 따른 출원·권리화 유도를 통해 디자인권에 대한 예비디자인의 인식고취, 국민적 이해 및 관심을 증대시키고, 더불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디자이너를 발굴하기 위해 「대학생 디자인공모전(Design & Right 2006)」을 개최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대학생 디자인공모전(Design & Right 2006)」은 거의 모든 디자인영역을 아우르는 전국규모의 최초 대학생공모전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코엑스 대서양관에서 열린다. 공모분야에는 △ 산업디자인(산업·운송·생활기기, 주얼리, 공예, 가구, 환경) △ 시각/포장/패션디자인(포스터, 책표지, 포장용기, 의상, 직물지) △ 화

상디자인(웹 아이콘, GUI 디자인, 캐릭터 등) △ 글자체디자인(한글, 영문, 한자, 숫자, 특수문자)이며, 응모조건 및 심사기준에는 디자인학과 재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 혹은 실용신안출원을 했거나 등록된 디자인으로, 1차 패널 및 출원서에 의한 심사를 거쳐 2차 실물(모형)심사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과 한국산업디자인협회 홈페이지(www.kipo.go.kr / www.kaid.or.kr)를 참조하면 된다.

특히 심사에는 특허청 심사관도 참여해 심미성 및 아이디어와 완성도 이외에 특허청의 디자인심사기준에 의해 심사를 하게 됨에 따라 보다 변별력 있고 우수한 디자인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전은 특허청과 (사)한국산업디자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디자인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후원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디자인전공대학생들에게 디자인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디자인권리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지식재산권 및 디자인권의 이해와 디자인등록출원요령 및 도면작성방법 등이다.

2005년 산업디자인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지원사업에서 2006년에는 시각·패션·공예디자인전공 대학생뿐만 아니라 디자인단체 디자인회사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디자인등록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캐릭터·GUI 등의 화상디자인, CI·BI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 등에도 디자인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 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